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

말씀: 창세기 6:1-22

요절: 창세기 6:13,14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보게 될 홍수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단일 사건 중에서 가장 긴 지면을 차지하는(6-9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의 심성에 들어와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과 동생에 대한 시기심으로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세속 문명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암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점차 타락해서 육체의 본성을 좇아 살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었다가는 그나마 가물거리는 불빛처럼 그 시대를 비추고 있던 노아마저 삼켜질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셋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인류 구원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유례없는 전무후무한 홍수를 일으키셔서 이 땅위에 넘실거리는 죄악을 쓸어버리시고,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생물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거의 다 썩어버린 절망의 시대에도 아주 조금 남아 있는 거룩한 씨들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썩어버린 시대에도 결코 포기치 않고 인류구원의 뜻을 줄기차게 이루어 가시는 희망의 주님이십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120년간 방주를 예비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절망적인 세상속에서도 이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쓰임 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1-12)

노아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타락한 시대의 예로 거론됩니다(마 24:37-39). 그래서 결국 노아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서 장차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있을 심판의 모형이 됩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

통의 경건한 자녀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여자들은 영적이고 거룩한것과는 거리가 멀고 자연스럽게 육체의 아름다움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성형외과가면 미인을 만들어 준다더라, 무슨 화장품을 바르면 김태희 같이 된다더라, 무슨 옷을 입으면 형제들이 졸졸 따라 온다더라’ 주로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늘씬한 몸매에 짝 달라붙은 옷을 입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나갈 때 못 남성들이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내면성이야 어쨌든 외모만 아름다우면 인기가 있고, 취직도 잘되고, 돈도 잘 벌고, 시집도 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살았으니 그 사회가 얼마나 음란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인 계통의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셋 계통의 경건한 남자들까지도 마음이 병들어 가인의 딸들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2절의 “보다”라는 동사는 ‘자세히 주목하여 본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은 창세기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 말씀의 패턴과 같습니다. ‘보았다 - 좋았다 - 취했다’ 이들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육신의 욕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기준을 상실하고 가인의 딸들을 취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그러진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신앙이야 있던 없던 외모만 아름다우면 최고라고 생각하며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셋의 후예로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의 신앙의 결혼을 가장 중요한 일순위로 꼽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일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꼭 믿음의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먼저 외모를 보고, 경제적인 조건을 보고, 믿음이야 나중에 결혼하고서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혼관이 변질되면서 신자와 불신자가 마구잡이로 결혼하게 되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을 어머니로 둔 자녀들은 순식간에 타락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본문에서 육신은 원문상 ‘바사르’로 고깃덩어리(flesh)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신’이 된 사람과는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그 시대 사람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이제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고,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신’이 되었다고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120년간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이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주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

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에는 근육질의 남성들로서 요즘 ‘몸짱’과 같은 장대한 네피림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하여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이유는 네피림 거인 족속과 같은 키 크고 힘센 자녀들을 낳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장대한 거인들이었으며 그들은 다 용사로서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대한 네피림은 침략자요 폭군으로서 고대 사회에서 매우 인기가 있고 유명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아마도 가인의 후손들에 비해 키가 작고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키 크고 잘 생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면 장대한 자손들을 낳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인의 딸들을 취하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5,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제 가인의 가치관은 세상을 덮어버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세상은 죄악이 더욱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승리하게 도와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시작하기 보다는 ‘오늘도 어디를 가야 킹카를 만나서 멋진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무슨 화끈한 일 없는가? 어떤 녀석을 꽤줄까? 등등 맨날 죄지를 생각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애정을 기울여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죄악으로 철저히 부패한 모습을 보시며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어성경에는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하나님의 마음이 pain(아픔)으로 가득 찼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쓸어버리고자 하실 때의 극심한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11,12절에 보면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온 땅이 썩었습니다. 온 땅이 썩은 것은 땅의 주인공으로 세움 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썩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온 땅에 강포, 즉 폭력(violence)만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문명은 육체의 이름다움을 뽐내는 음란과 육신주의 문명, 육체의 힘을 믿고 자랑하며 침략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폭력이 구조화된 문명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죄악에 셋의 후손들마저 완전히 동화되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고 불신앙의 자녀들을 낳아 더욱 경쟁적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따라 네피림 거인 족속들로 자녀를 키우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이미 맛 잃은 소금이 되어 그 시대에 거룩한 씨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의 후손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더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온 땅이 썩었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의롭게 사는 경건한 소수가 있을 때 그 경건한 소수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셋의 후손들마저 모두다 그 시대에 무릎을 꿇고 맛 잃은 소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는 모두 썩어 버

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랬다가는 노아의 가족들마저 불경건한 그 시대의 죄악에 휩쓸려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쓸어버리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영어로 ‘wipe’로서 물청소를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온 땅이 썩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청소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홍수로 쓸어버리고자 하신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절망적 감정에서 비롯된 잔인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다고 해서 너무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죄로 더 이상 썩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희망의 역사입니다. 죄로 썩어버린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노아의 가족만큼이라도 보존하셔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희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샀을 때 99%가 다 썩고 달랑 한 개 남은 사과마저도 썩으려고 하면 그 사과를 박스 채 갖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온 땅이 썩어버렸는데 땅 자체를 멸해버리지 않으시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쓰시려고 하셨습니다. 깨끗이 씻으신 땅 위에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찌하든지 노아를 살려서 인간구원의 역사를 끊기지 않고 줄기차게 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열정과 희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덜 썩은 온전한 사람 몇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썩지 않고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 주셔서 그 수효를 번성케 하는 일을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시대가 악하더라도 안 썩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에다 초점도 맞추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좀 덜 썩은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더욱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썩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희망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노아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것에만 쏠려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면 먹방이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방, 달걀빵 먹방, 새우초밥 먹방, 라면 먹방, 도다리 먹방 등이 유행입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 유튜버가 청소년들이 되고 싶은 1순위 직업이 되었습니다. 또 매일 뉴스에는 연예인 음란물 유포사건, 정치인의 성 접대 사건, 재벌 2세들의 마약 투여 사건, 친딸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이 도저히 민망하고 끔찍해서 쳐다 볼 수도 없는 사건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노아시대와 같이 완전히 썩고 부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But Noah’ 이는 대 반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어서 짐승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려서 싹 쓸어버릴 수 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온 땅을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 중에서도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

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노아에게 임한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까? 9,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righteous man)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blameless)였습니다. 의인이란 성경이 부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라는 호칭에 ‘완전한 자’라는 호칭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완전한 자’란 책망 받을 것 없고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의로움과 완전함은 그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으로 의롭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 같은 죄인입니다. 10절에 보면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키워도 얼마나 속이 시끄럽고 힘들니까? 그런데 세 아들과 살다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란 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홍수심판 이후에 술에 취한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불려진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영어로 ‘walk with God’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길을 누구와 같이 걸어가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사람인데 어찌 주변에서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죄의 타류가 밀어닥치는데 어찌 그라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죄를 범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던 비극적인 역사를 항상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재미있는가 재미가 없는가?" "편리한가 불편한가?" 이것을 생각하였지만 노아는 "하나님 편에서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질문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간에 하나님편에서 옳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시조를 즐겨 읊었을 것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하리라" (성상문 시조) 베드로후서 2:5절에 보면 그는 또한 소극적으로 중심만 지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8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노아와 가까이하여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홍수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라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캠퍼스에 대학생들이 다 쾌락을 좇아 행할지라도, 안재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캠퍼스에 청년남녀들이 다 쌍쌍히 연애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김사랑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희가 세상에서 좀 인기가 없고 좀 주목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II.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6:13-22)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13,14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고페르 나무'는 좀 생소한데 '삼나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곧 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주 짓는 일을 노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방주안에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혈육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이끌어 들여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되어 버린 사람들과 그 세상을 물로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타락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안에 새 역사의 주역들을 감추어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재창조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담과 가인이후로 실패한 인류 역사를 회복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새로운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얼마나 엄청난고도 축복된 약속의 말씀입니까?

15,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도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방주를 만들때도 알아서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방주는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에 해당 하는 축구장 길이에 1.5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방주입니다. 학자들은 이 정도의 공간이면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1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 35,200마리를 실어도 1/3 정도밖에 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제작된 목선 중 가장 긴 것은 9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크게 되면 수압 때문에 나무들이 이어진 곳을 통해서 물이 끊임없이 새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을 퍼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지은 방주는 150m 였습니다. 방주의 모양은 필요한 짐을 싣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바다를 향해하기에 적합하였습니다. 비가 올 때 가장 안정성이 있고 복원력이 강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키나 돛이 없었습니다. 이는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홍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노아에게 이런 엄청난 크기의 목선을 만들도록 하신 것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이 방주제작에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반면 노아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방주의 설계도는 작은 보트나 고깃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배요, 하루아침에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요했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느라고 정말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짓는데 들어가는 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 나무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하는 역청은 또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나무를 일일이 베고, 대패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일층, 이층, 삼층의 칸들을 막고, 창을 내고, 문을 다는 것은 굉장한 노동이요, 수고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발달된 장비와 전문가가 해도 힘이 드는데 장비도 없이, 전문기술도 없이 할러니 힘이 몇배가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는다고 누가 인부를 대주는 것도 아닙니다. 총 8명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4명은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8명의 가족이 먹고사는 생계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투자하여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남들은 쉬면서 오락을 즐기는 시간에 노아와 가족은 모두 다 배 만드는 일에 달라붙어 땀을 흘려야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여 쉬고 싶고 남들처럼 여유를 부리며 살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목재를 자르고 못질을 하여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 아귀가 잘 안 맞아 다시 뜯어낼 때면 그만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대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노아가 노망이 들더니 그의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모두다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버렸다’고 놀려댔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노아 ‘노망한 아저씨, 노망한 아저씨’ 노래하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햇별은 짹짹 모래알은 반짝이는데 120년 후에 있을 비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광신자 가족이라고 놀려댈 때 이를 참아내는 것이 여간 어려웠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람 같으면 차라리 홍수 심판에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2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방주 프로젝트가 너무 거대하다고 꾸념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고, 자녀들이 힘들어 한다고 우리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보트 정도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생물들까지 꼭 데리고 가야 하는가 하며 1/2로 축소하자고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노아는 한마디 말 대꾸나, 반발이나, 불평도 없이 100% 다 준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심판의 경고를 믿었습니다. 그가 방주를 예비할 당시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120년 후에 무서운 홍수가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심판의 경고를 믿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120년을 한결같이 방주예비의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만홀히 여깁니다. 빨간 망아지 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쾌락을 좇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줄지에 심판의 밋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해버리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둘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 불평없이 다 준행하여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관대 은혜를 베푸사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홍수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새 창조역사의 귀한 사명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 방주만 안전하게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통해서 새롭게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제 2의 에덴이 됩니다. 노아는 제 2의 아담격이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처럼 노아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새 역사 창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방주짓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상대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와 네 집을 구원하리라. 너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리라”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생명들을 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7부 교회의 동역자님들은 ‘노아의 홍수심판’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난 지각변동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의 역사를 창조할 믿음의 공동체,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UBF의 새로운 모델이 될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역청으로 칠해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창을 닫고, 하늘을 향해 창이 열려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방주 짓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하고, 하루종일 양들을 좇아 다니고, 없는 돈 털어서 양들 밥 먹이고, 밤늦게까지 1:1을 하기도 합니다. 학사님들은 피곤한 직장생활을 마치고, 다시 센터에 와서 말씀공부를 하고 동역자모임도 하고, 없는 물질을 드러서 주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도 양들은 목자의 마음을 몰라주고, 바람을 맞히고, 이런 저런 말로서 목자의 속을 긁어 놓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신앙생활이란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짓는 수고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미래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짓는 사명,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도 쉽게 죄악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주짓는 십자가가 힘들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줌을 깨닫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젊은 청년들, 죄에 가장 쉽게 오염되고 타락하기 쉬운 대학생들을 태우기 위한 청년들의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값지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하는 한 팀의 1:1, 새벽, 저녁마다 부르짖는 기도, 양들을 섬기고 모임을 이루는 것들이 다 하찮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주일예배 섬김을 위해서 사랑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시는 사모님의 수고가 무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처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시대 작은 노아들의 망치소리가 하나님의 희망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아 시대의 홍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거룩한 씨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노아를 보존하시고 노아를 통해 구원의 새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시대에도 구원의 새 역사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영접해야겠습니다. 이 시대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시대의 죄악에 썩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